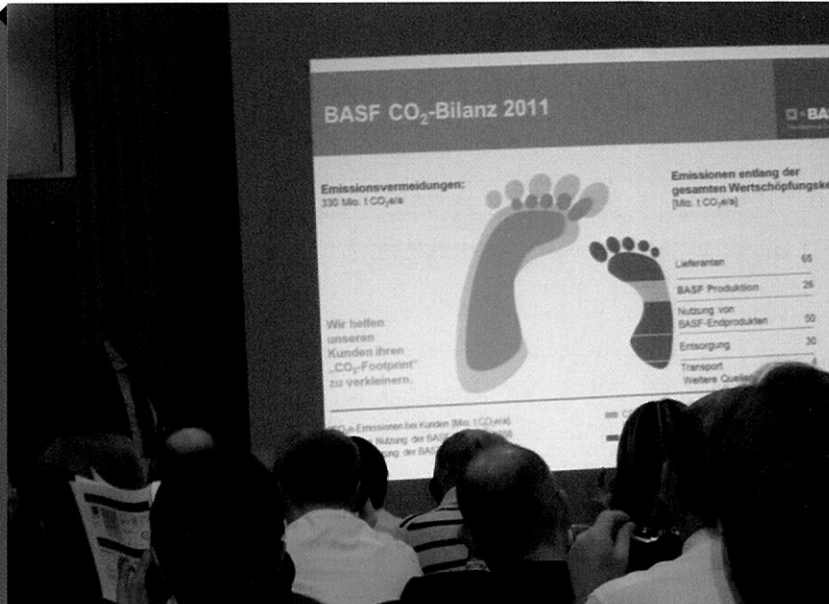


최저 비용의 CO₂ 절감방식은 건물 단열

지난 11월 28~29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'Particle Foam 2012'에서 독일 바스프(BASF)사가 발표한 '스티로폼(EPS) 세계시장 및 지역시장'이란 주제의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.



BASF CO₂-Bilanz 20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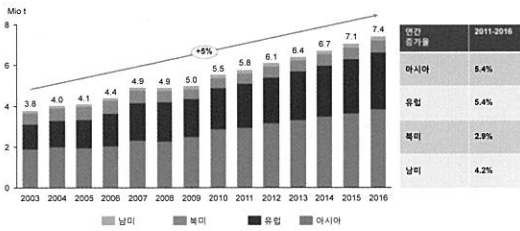
Emissionsvermeidungen: 330 Mio. t CO₂/a

Wir helfen unseren Kunden ihren "CO₂-Footprint" zu verkleinern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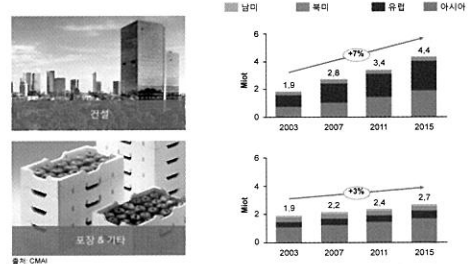
Emissionen entlang der gesamten Wertschöpfungskette (Mio. t CO₂/a)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Lieferanten | 65 |
| BASF Produktion | 26 |
| Nutzung von BASF-Endprodukten | 90 |
| Entsorgung | 30 |
| Transport | 10 |
| Weitere Quellen | 1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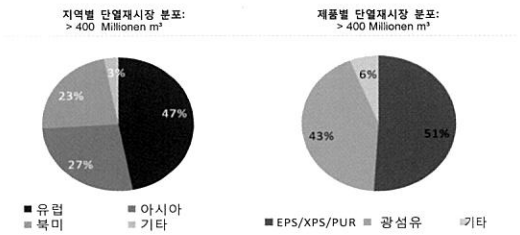
지역별 스티로폼 시장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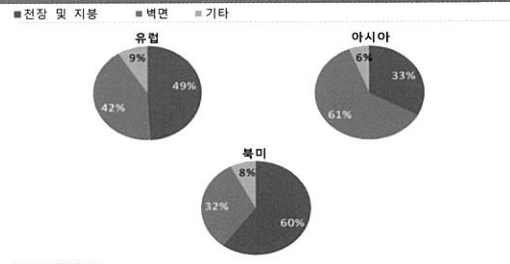
건설업 : 스티로폼 산업의 주요 성장동력



2011년 전 세계 단열재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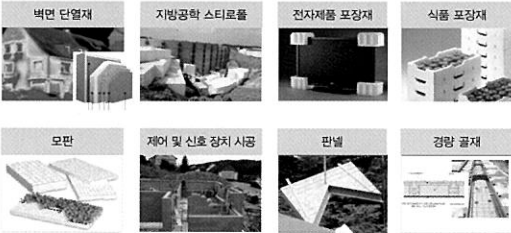


지역별 단열재 사용량 2011년 총소비량





스티로폴의 용도



16

미래를 결정짓는 세계적 변화의 물결



MEGATRENDS

- 2030년 지구의 인구는 현재 인구(69억)의 20%가 증가한 83억에 이를 것이다.
-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59%가 도시에 살 것이다.
- 2010 - 2030년의 중위연령(median age)은 5.1세가 증가한 34세가 될 것이다.
- 2030년까지 주요 에너지 소비량은 25% 증가할 것이다.
- BRICS-국가의 GNP는 2010년에서 2030년까지 매년 7.9% 증가할 것이다.
- 통합적 생산방식은 점차 부동별로 대체되어 개별생산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.

출처: 올란트 베르거(Olandt Bergen), 김성 포털(Support)

20

미래 건설산업의 성공가능성 : 에너지 절약 및 CO₂ 배출 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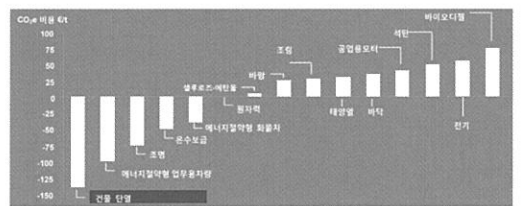
- 석탄, 석유, 가스 외 같은 화석연료는 앞으로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것이다.
- 오늘날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1/3은 건물이 차지한다.
-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45%는 냉·난방 및 환기 장치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.
- 2005년 건물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₂e 배출량은 8.3 Gt에 이른다. 방출억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12.6 Gt으로 늘어날 것이다.

→ CO₂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.

출처: International Energy Agency, McKinsey 조사 2009

21

건물 단열 · CO₂ 감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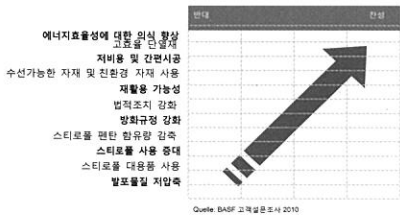


→ 최저비용의 CO₂ 절감방식은 건물단열이다.

출처: 2009년 McKinsey 사적 조사

22

스티로폴 시장의 변동추이 2010년 설문조사



Quote: BASF 고객설문조사 2010

23

스티로폴 시장의 변동추이 · 전망

- 단열효과 향상
- 시스템 차원의 문제해결
- 온대지방 단열
- 방화물질
- 작동 및 중지 가능한 단열방식



사진: German Energy Center & College, 각 시공현 장에서

24